

# “이번이 확실한 버전...완성된 퍼즐”

### 옥주현 뮤지컬 ‘마타하리’ 출연 시즌3 공연 내달 15일까지 펼쳐



뮤지컬 배우 옥주현 /EMK뮤지컬컴퍼니 제공

“마타하리 시즌1, 시즌2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번에 확실한 버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대본을 받았을 때 완성된 퍼즐을 본 것 같았어요.”

뮤지컬 ‘마타하리’에서 초연부터 재연, 삼연까지 주인공 마타하리를 연기하고 있는 옥주현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샤�롯데씨어터에서 열린 프레스콜(언론 대상 시사회)에서 “맥락은 시즌 1·2·3이 모두 같지만 가장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배역에 이입해 그 순간을 살 수 있게끔 한 버전이 이번 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재연은 남독이 가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이 조각과 저 조각 사이가 많이 빠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이제 온전히 그림을 맞춘 것 같고, 물입이 잘 돼 두시간 반 공연도 체감상 ‘레베카’ 보다 훨씬 짧았다”고 덧붙였다.

“마타하리”는 2016년 초연됐고 2017년 재연에 이어 지난 5월 28일 세 번째 시즌의 막을 열

렸고, 또 다른 자아인 마카레타(마타하리의 본명)라는 캐릭터도 등장시켰다. 그러다 보니 곡의 순서도 재배치되고 비주요적인 요소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서사와 곡을 다듬으면서 배우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들었다.

마타하리를 사랑하지만, 그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라두 대령을 맡은 최민철은 “연출·안무가와 상의했던 것이 ‘(라두 대령의) 집착과 욕망만 보여주지 말고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자’는 것이었다”며 “그렇게 ‘스피아가 되어’ 넘베에 나오는 탱고 장면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은 “옥주현이 어떤 곡들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 내가 ‘괴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작곡에 임했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번 ‘마타하리’는 걸그룹 ‘마마무’의 솔라가 뮤지컬에 처음 데뷔한 작품이기도 하다.

솔라는 “그래도 가장 자신이 있었던 것은 ‘노래’였는데 ‘(노래가) 너무 솔라 같다. 마타하리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혼란스러웠다”며 “모든 것이 처음이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즐거운 경험이였다”고 말했다.

공연은 8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

# 영탁 7월 첫 단독콘서트 ‘탁쇼’ 펼친다

### 인천·대구 등 전국투어



영탁 /연합뉴스

가수 영탁이 데뷔 후 첫 단독 콘서트를 연다. 22일 공연기획사 에스이십칠에 따르면 영탁은 다음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송파구 KSPD 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탁쇼’(TAK SHOW)를 연다.

이번 공연은 2005년 영탁이 음악 활동을 시작한 지 17년 만에 열리는 첫 콘서트다.

특히 7월 4일 첫 정규 음반 ‘MMM’을 발매한 뒤 팬들과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공연 관계자는 “그동안의 음악적 활동을 집대성하는 자리”라며 “장르를 불문한 음악과 섬세한 무대 구성, 재치 넘치는 예능감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대구, 대전, 창원, 부산, 전주, 안동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 이외 공연 일정, 장소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영탁은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

터트트’에서 선(善)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누나가 딱이야’ 등의 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장민호의 ‘워십 안워십’, 정동원의 ‘짜짜공짜’, 김희재의 ‘따라따라와’ 등을 프로듀싱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매력적 캐릭터 욕심...눈빛까지 신경썼죠”

### 수지, 쿠팡 6부작 ‘안나’ 주연 이름·과거 바꾼 인격장애 연기



수지 /쿠팡플레이 제공

가수 겸 배우 수지가 학력과 과거는 물론 이름까지 전혀 다른 두 사람으로 살아가는 ‘리플리증후군’ 인물로 분해 시청자들을 찾는다. 리플리증후군은 거짓말을 일삼다 결국 환상 속에 사는 인격장애를 뜻한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6부작 시리즈 ‘안나’를 24일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안나’는 결핍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유미가 거짓말을 거듭하면서 안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유미이자 안나로 분하며 첫 단독 주연을 맡은 수지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욕심이 났다”면서 “부담이 크긴 했지만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지는 10대 학창 시절 유미부터 30대 후반 안나라까지 약 20년 동안의 모습을 연기한다. 그는 “유미와 안나가 눈빛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지도록 신경 써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섬세한 감정 표현을 위해 심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수지는 “유미가 안나로 변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모두의 관심 속에서 자라는 유미를 초라하게 만들고 각성하게 하는 인물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유미의 직장 상사 현주다. 유복한 현주로 분한 정은채는 “작품이 한 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입체적인 여성들이 많이 등장해서 끌렸다”고 강조했다.

안나의 남편 지훈 역을 맡은 김준한은 “남다른 야망을 갖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배역을 소개했다.

김준한은 ‘안나’가 원작 소설 ‘진밀한 이방인’을 각색한 작품인 데 대해 “신선한 소재가 감독의 영화적 시선과 어우러졌다”며 “처음 대본을 받아봤을 때부터 구성이 탄탄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아이브 ‘러브 다이브’ 멜론 역주행 1위

### 장원영 시구 등 SNS서도 화제

걸그룹 아이브가 두 번째 싱글 ‘러브 다이브’(Love Dive)의 인기로 힘입어 맞수 없는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발표된 이 노래는 멜론 ‘톱 100’ 차트에서 이날 오전 9시 현재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데뷔한 아이브는 ‘러브 다이브’ 발매 76일째인 지난 19일 멜론 ‘톱 100’ 차트에서 데뷔 이후 첫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0일에는 멜론 일간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현재 멜론 ‘톱 100’ 차트를 살펴보면 상반기 크게 히트한 (여자)아이들의 ‘톰보이’(TOMBOY), 데뷔 22년 차의 관록을 과시한 싸이의 ‘댓댓’(That That), 월드컵 방탄소년단의 ‘Yet To Come’, 국내 팬덤만 보면 상대할 이가 없다는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등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가요계에서 멜론 차트 1위는 팬덤의 힘과 대중의 사랑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거머쥘 수 없다는 점에서 음악 프로그램 1위보다 훨씬 따내기 힘든 ‘트로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차트에서 아이브는 발매한 지 3개월 된 노래로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정상에 오른 것이다.

‘러브 다이브’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퍼커션 사운드가 어우러진 다크 모던 팝 장르이다.

사랑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자신 있게 뛰어 들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노래는 최근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베스트 K팝 노래’로도 뽑혔다.

아이브는 데뷔곡 ‘일레븐’(ELEVEN)에 이어 ‘러브 다이브’까지 두 작품 연속 뮤직비디오 유튜브 1억뷰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가요계 관계자는 “지난 18일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드림콘서트’에서 다룬 남자 그룹 팬들도 다 아이브 노래를 따라 부



그룹 아이브 /연합뉴스

르더라”고 밝혔다.

이어 “노래가 쉽게 귀에 들어오고 따라 부르기 쉬운 것이 큰 장점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1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진행한 멤버 장원영의 시구와 아이브의 단체 축하공연도 엄청난 인기를 끌어 틱톡 등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며 “두 대형 오프라인 행사 이후 음악 청취자들의 반응이 올라오면서 일간 1위까지 올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통합뉴스룸 7:50 인간극장 8:25 아침대망 9:30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황금연못	6:00 생활의 발견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불만인 아침 1부 8:10 해 불만인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오라차차 내 인생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황금기연 스페셜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생활속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 9:30 930 MBC 뉴스 9:45 기본 좋은 날 10:45 글로벌 동물뉴스 11:15 똑딱구즈2 11:30 반짝이는 프리채널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세상 11:30 교향이 보인다	6:10 세계테마기행 7:00 두디다쿵 7:15 티시테시 8:00 당동명 유치원 8:20 한글왕사 아이야 9:05 빅블루 9:20 햄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부모클래스 1:00 버디가 사람들 1:50 영의대 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3:05 클래식 4:05 영이 스토리 타임 4:15 페피피 5:00 EBS 뉴스 5:20 못말리는 어린 양 손 5:30 히프와 친구들 6:00 생활속 워터지 해결단 6:45 한자로통하는삼국지 7:30 한국의 둘레길 7:50 맞타사이클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이것이 야생이다3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55 클래식
12:00 통합뉴스룸 1:00 별별다방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통합뉴스룸 2:10 세상을 걷다 스페셜 2:50 병과 후 초능력 3:00 주디세이 3:15 풀풀이의 그림일기 3:30 고등등심포니 4:00 사사건건 5:00 통합뉴스룸 5:30 동물의 왕국	1:00 박원숙의같이살시다 2:00 생활정보 스페셜 3:00 KBS 뉴스타임 3:10 걸럭시 키즈 3:30 TV 유치원 4:00 누가누기질해나 5:00 뽀족뽀족 포크가족 5:15 티티채널 5:30 농촌에능다라잡기 5:50 통합뉴스룸ET	12:00 12 MBC 뉴스 12:20 닥터로이어 1:40 출발! 비디오 여행 1:50 2시 뉴스 외전 3:20 뽀뽀뽀 좋아 좋아 3:55 기본 좋은 날 4:55 5 MBC 뉴스 5:10 실화탐사대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50 왜 오수제인가 2:00 뉴스브리핑 4:00 꼬리에꼬리를무는 그날 이야기 5:00 SBS 오뉴스 5:50 DNA 상어	48년생 하고 있는 일에 장애가 생긴다. 60년생 갭이 비었으니 한숨만 나온다. 72년생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84년생 그동안의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6:00 6시 내고향 7:00 통합뉴스룸 7:40 한국인의 밥상 8:30 오라차차 내 인생 9:00 통합뉴스룸 10:00 다크 인사이트 10:50 더 라이브 11:30 통합뉴스룸	6:30 2TV 생생정보 7:00 황금기연 8:30 주접이몽년 9:50 징크스의 연인 11:00 연중라이브	6:05 생활속 오늘 저녁 7:05 생활속 연금복권720+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실화탐사대 11:20 심야미담회	6:50 생활속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DNA 상어 9:40 골 때리는 외박	49년생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하는 날이다. 61년생 동서남북 운이 활짝 열렸다. 73년생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안 된다. 85년생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50년생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는 것이 이롭다. 62년생 현상유지가 정답이다. 74년생 명분 없는 싸움을 하지 말라. 86년생 사랑과 행운이 찾아온다.
				51년생 가능하다면 복지부동함이 이롭다. 63년생 정해진 일에 미련을 갖지 말라. 75년생참고기 다리면 기회가 온다. 87년생 악성 댓글에는 무관심이 약이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6월 23일 (음력 5월 25일)

 <b>子</b> 48년생 하고 있는 일에 장애가 생긴다. 60년생 갭이 비었으니 한숨만 나온다. 72년생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84년생 그동안의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b>辰</b> 52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64년생 과정은 험난하나 결과는 좋겠다. 76년생 생 지나친 양보는 미덕이 아니다. 88년생 자신의 선택을 믿어라.	 <b>申</b> 44년생 만사형통하는 좋은 날이다. 56년생 친한 사람과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68년생 뜻밖의 소득을 얻겠다. 80년생 정신이 바쁘지만 일은 잘 풀린다.
 <b>丑</b> 49년생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하는 날이다. 61년생 동서남북 운이 활짝 열렸다. 73년생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안 된다. 85년생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b>巳</b> 41년생 자식 덕 좀 보겠다. 53년생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다. 65년생 정공법으로 돌파하라. 77년생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속마음을 숨겨라.	 <b>酉</b> 45년생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사방이 번다. 57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생긴다. 69년생 님도 보고 뽕도 탄다. 81년생 과음하면 실수할 수 있다.
 <b>寅</b> 50년생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는 것이 이롭다. 62년생 현상유지가 정답이다. 74년생 명분 없는 싸움을 하지 말라. 86년생 사랑과 행운이 찾아온다.	 <b>午</b> 42년생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54년생 가능하다면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라. 66년생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78년생 몸은 힘들고 지출도 많아진다.	 <b>戌</b> 46년생 가능하다면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라. 58년생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70년생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82년생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
 <b>卯</b> 51년생 가능하다면 복지부동함이 이롭다. 63년생 정해진 일에 미련을 갖지 말라. 75년생참고기 다리면 기회가 온다. 87년생 악성 댓글에는 무관심이 약이다.	 <b>未</b> 43년생 고집을 접고 충고를 받아들여라. 55년생 몸의 부상이 우려되니 조심하라. 67년생 구설수는 있지만 손해는 없었다. 79년생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b>亥</b> 47년생 눈치 없이 나서면 미움을 받는다. 59년생 유행가는 열썬도 말라. 71년생 조금만 신경 쓰면 손해는 없었다. 83년생 잘 못하면 돈 잃고 사람도 잃는다.